

청정지역 강진서 '두 바퀴 여행' 즐기세요

'두 바퀴로 그린 자전거여행'
힐링·문화·건강코스 3가지
다음달 1일부터 11월까지
'힐링! 자전거 여행'도 연중 운영

(4시간)는 올해 새로 추가했다. 프로그램도 3가지로 세분화했다. '강진군민 힐링! 자전거 여행'은 오는 11월까지 강진만 생태공원에서 연중 상시 운영된다. '가자! 보물 찾으러 강진만 갈대숲으로' 프로그램은 10-11월 갈대축제 기간에 강진만 생태공원 자전거도로(힐링·건강 코스)에서 진행된다. '추억을 담아가세요!'는 자전거여행 참가자 개인이 스스로 스마트폰이나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한 사진을 즉석에서 인화해주는 프로그램(인화비·액자 포함 3000원)으로 상시 운영된다. 행사 운영은 강진군체육회가 맡는다. 1회 이용시간은 3시간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1인용 자전거는 1000원, 2인용은 2000원의 요금을 받는다. 3시간 초과 시 30분당 500원(일일 최대 3000원)이 추가된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코로나19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실천하고 손과 자전거 소독 등 방역 작업을 철저히 할 것"이라며 "관광객들이 청정지역을 자전거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kwangju.co.kr



'두 바퀴로 그린 자전거여행' 참가자들이 힐링코스를 달리고 있다. <강진군 제공>

장흥군 청사 신축 오늘 공청회 개최

장흥군은 22일 청사 신축 부지(광주일보 5월19일 11면)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21일 장흥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5일에 이어 22일 군민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청사 신축 부지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7월까지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흥군은 40년 이상 된 낡고 불안정한 청사를 대신할 건물을 신축하기로 했다. 청사 시설별 안전 진단에서 지난 1977년 준공한 본관은 D등급, 1965년 지은 별관은 B등급, 2003년 준공한 의회동은 C등급을 받았다. 안전성뿐 아니라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았고 청사 내 엘리베이터가 없어 공무원, 민원인 불편이 큰 상황이다. 장흥군은 오는 2022년까지 397억원을 들여 건축 연면적 1만4천200㎡,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로 새 청사를 짓기로 했다. 어린이집, 도서관, 전시실, 공연장, 북카페 등 편의시설과 광장, 공원 등을 새 청사에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장흥군은 청사 건립기금 설치 운용 조례에 따라 지난 2017년부터 기금을 조성해 현재 304억원을 확보했다. 다만 현재의 군청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지, 아니면 다른 대지를 매입해 이전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 부지 내 신축은 대지 매입 기간이나 비용이 별도로 들지 않아 효율적이나 공사 기간에 업무 차질, 주차 불편 등이 예상된다. 이전하는 경우에는 후보지 선정, 매입 등에 시간이 필요하고 사업비에서 부지 매입비를 빼면 건축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 현 청사 주변 상권 쇠퇴에 따른 반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장흥=김용기 기자 중부취재본부장 kykim@

"황룡강 옛날 사진 찾습니다"

장성군 6월 1일~8월 31일 공모
10월 노란꽃잔치 기간에 전시

지난 황룡강의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공모전을 연다. 2014년 이전의 황룡강 또는 황룡강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공모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8월 말까지이며, 이메일(whiteinn@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장성군은 주제 적합성, 작품성 등을 심사해 수상작을 선정한다. 선정 작품은 10월에 열리는 황룡강 노란꽃잔치 기간 전시할 예정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장성군은 황룡강 옛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사회·문화·역사적 가치가 있는 황룡강의 옛 사진을 발굴, 추억을 공유하고 황룡강을 더 널리 알릴 계획이다. 장성군을 가로질러 흐르는 황룡강은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컬러마케팅 사례인 '엘로우시티 장성'의 모티브가 됐다. 장성군은 엘로우시티 발원



장성군이 황룡강의 변천사를 담은 '황룡강 옛날 사진'을 공모한다. 사진은 지난해 '황룡강 노란꽃잔치' 현장. <장성군 제공>

집수리는 우리 손으로...나주 영산포 집 고쳐주기 추진

나주시는 영산포 도시재생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가 노후화된 영산포지역의 집수리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협의회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회가 주관한 지역 기반과 정책을 연계한 창업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주민이 지역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사회적기업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주민협의회는 공모에서 영산포3개동(영산·영강·이정)의 노후된 집을 직접 수리해 주민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거양득의 사업을 편다. 앞서 창업 지원 기관인 마을 및 자치협동조합과

협약을 체결, 사업단 구성과 사업 추진을 위한 창업 컨설팅을 지원받는다. 주민협의회는 또 최근 총회를 열어 사업 설명을 하고 사업단에 참가할 주민을 모집하기로 했다. 김민주 주민협의회 대표는 "영산포 집 고쳐주기 사업은 노후주택 개선으로 주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침체한 영산포 지역에 활기를 불어 넣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업 종료 후에도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를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나주 영산포 도시재생주민협의회가 최근 총회를 열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안내했다. <나주시 제공>

강진군 빈집·빈 점포 활용 청년 창업·주거공간 조성

강진군이 빈집과 빈 점포를 활용해 청년들의 주거와 창업공간으로 만든다. 강진군은 전남도의 '전남인구 새로운 희망 찾기' 공모사업에 선정돼 받은 도비 등 3억원으로 빈집과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층의 새로운 주거·창업·커뮤니티 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대상은 강진에 거주하는 만 45세 이하 청년이다. 오는 28일부터 빈집 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청년 주택으로 조성하고 청년에게 반값 임대주택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다. 6월부터 빈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을 모집해 청년역량강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빈 점포 창업비는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강진군 관계자는 "도시재생사업은 자원순환의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유경제 플랫폼을 마련한다는 데 큰 의미와 목적을 두고 있다"며 "청년들의 다양한 활동과 창업은 침체한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청년일자리도 창출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l@

신세계안과

10인의 안과전문의 분야별 진료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라섹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

광주보청기 난청센터

보청기

무료체험·출장

직접 체험 후 결정!!

- ✓ 잠음없이 깨끗한 소리
- ✓ 윙윙~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362-3336
광주 돌고개 2번출구 대형약국 3층